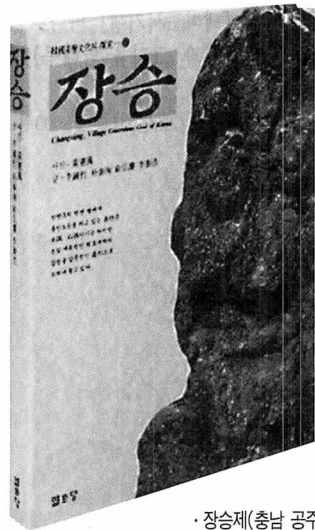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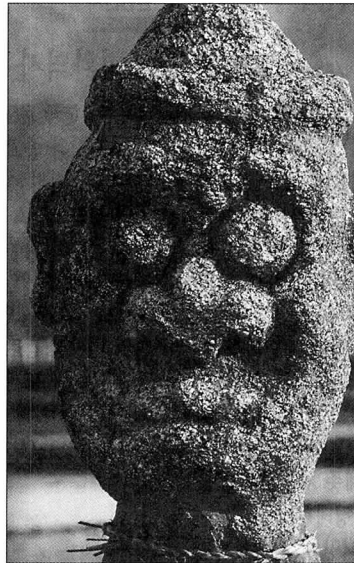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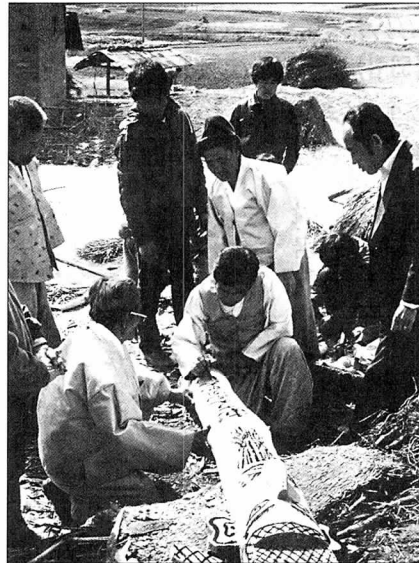


# 한두레 삶을 같이 누려온 장승들

## 황헌만 《장승》



· 장승제(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왼쪽)  
· 벽수(전북 남원군 운봉면 서천리, 오른쪽).



반도의 땅에 밀어닥친 험한 풍파를 온몸으로 받으며 노숙하는 장승은 세속의 온갖 회노애락을 압축적 조형으로 드러낸다. 민족의 삶 한가운데 자리하여 수호신으로 역할을 다해온 장승. 그들의 자취를 좇아 전국을 떠돌던 황헌만(51)은 사진집 《장승》(열화당)을 통해 조선 '토종'의 표정을 생생히 재연한다.

장승의 표정은 실로 다양하다. 만들 때부터 그저 떠오르는 형상을 손 가는 대로 깎아내고 빚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지역 장승을 보아도 공통적인 특징은 있다. 순박한 토속미, 멧 부리지 않은 단순함, 사상성과 상징성의 은근한 반영, 자연과 동화되는 감성. 그리고 추상적인 신비감이 배어나 우리 민족에 전래하는 인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칠혹같은 어둠 속에서도 눈을 부릅뜬 채 서 있는 장승은 마을의 해악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고, 길가에 비스듬히 누워 한껏 미소를 머금고 있는 벽수는 마을에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나눠주는 불신이다. 당산나무와 교접하듯 붙어 있는 목장생은 아이를 점지해 주거나 농사가 잘 지어지도록 이끄는 풍요의 신이고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 풍파에 시나브로 스러진 돌장승은 장수를 지켜주는 수문장이다. 그리고 우직하게 생긴 장승을 향해 허리 굽혀 축원하는 할머니의 모습이나 마을의 안녕을 위해 액막이 장승을 만드는 시골 사람들의 순박한 얼굴에 또다른 장승이 서려 있다. 온몸에 새끼를 둘둘 말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장생'은 아이들의 눈 속에 살아 있다.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어 함께 살아가는 장승. 선돌·숫대 등과 같이 한두레(공동체) 삶을 함께 누려온 장승들은 '못난 것들'의 상징으로 기층문화에 뿌리가 깊다. 장승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민족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이나 풍찬노숙을 하며 유구한 세월을 견뎌온 장승의 얼굴에서 민족의 이력서가 드러나는 것은 항상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한국적 자취를 더듬으며 민족의 얼을 찾아 분주히 움직였던 작가는 시골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사진집 《초기》(1991)와 산하를 지키는 수호신의 초상 《조선땅 마을 지킴이》(1994)를 열화당에서 펴냈다.

— 오완진 기자

# 출판저널

통권 제240호/1998년 7월 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증한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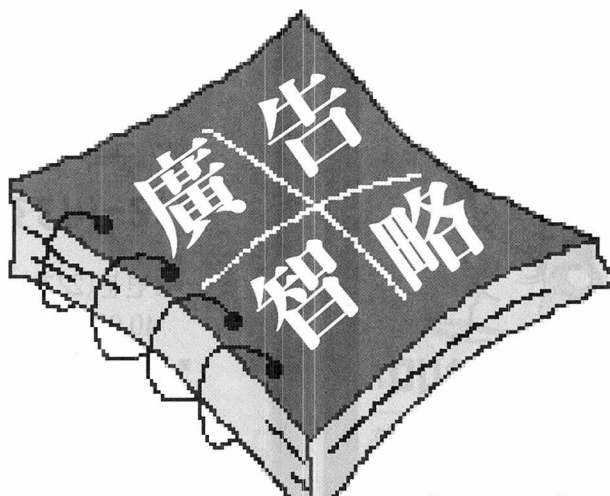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보다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은 어려운 출판계의 현실을 《출판저널》 광고지략으로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